지난주 참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선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참례 인수
0명		15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 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 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임을 알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6.2(목) 오전10시 연수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① 일 시 : 5.31(화)~7.26(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② 장 소 :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 봉사자 온전케 하는 집회로 6.7(화)은 세미나가 없습니다.

3. 제 5회 영파플 집회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⑤ 신 청 : 7.3(주일)까지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국 특별집회(경기권역특별집회)

① 일시 : 6월 5일(주일) 오전 9시-오후1
②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 2 전시장 1층 Hall 6BC)
③ 헌금 : 특별집회를 위한 모든 비용은 헌금으로 충당됨
반드시 **1인당 1만원이상** 헌금을 집회장소 출입문 안쪽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차 : 주차장은 Gate 3 진입⇒ 지하 주차장 진입 ⇒ Hall 6 방향직진⇒주차후 Hall 6전용 에스컬레이트 이용
버스는 Gate 3 진입⇒오른쪽 지상주차장
(주차비 : 기본30분 1,000원 추가 15분당 500원, 하루 주차비 10,000원 공용주차장 2,000원/1일)
* 주차장 입구는 자동인식이며 출차시 교통카드는 터치, 신용카드는 삽입하여 결제함.
⑤ 어린이 봉사 :
가) 5세이상 :
* 명찰 : 교회, 봉사자 이름, 핸드폰 번호 // 어린이 이름, 학부모 이름, 핸드폰 번호
* 어린이전람 준비장소 : 제2전시장 1층 Hall 6A안쪽 (대집회장소옆)
나) 5세 미만 및 노약자 : Hall 6A(대집회장소 옆)에서 동영상 시청가능
⑥ FM 라디오청취 : 주파수: FM 103.3MHz)
⑦ 떡과 생수를 공급함(집회후 퇴장시 출구쪽) : 기타음식 반입금지

2. 전국특별집회 실시간 및 녹화방송 안내

집 회	집회 날자	생방송 시간	녹화 가능 시간
서울강원권역	6.5(주일)	16시-18시	6.5일 19시 이후
호남권역	6.10(금)	19:30-21:30	6.11일 09시 이후
충천권역	6.11(토)	11:00-13:00	6.11일 19시 이후
경북권역	6.11(토)	19:30-21:30	6.12일 09시 이후
경남권역	6.12(주일)	10:00-12:00	6.12일 14시 이후

* 집회시간일 경우는 녹화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 실시간(녹화)집회는 지역별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1.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신춘중국어집회메시지 5
* 다음에 추구할 메시지는 봄 장로훈련 메시지입니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5.16.(월) ~ 2016.05.22(주일))

지역	1지역 (80명)						2지역 (89명)							3지역 (102명)							4지역 (116명)										5지역 (95명)			6지역 (49명)			7지역 (21명)		계
그 룹	학익	인하	신흥	청년1	청년2	대학	간석	구월	만수	장수	논현1	논현2	주안	청년	연수	동춘	청학	송도	선학	가좌	석남	신현	가정	연희	청라1	청라2	검암	당하	검단	삼산	부평	청천	산곡	효성	작전	계산	임학	중산	운남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의상	21	16	15	13	11	4	9	13	11	12	10	15	13	6	23	18	18	27	16	13	9	10	12	20	10	11	7	14	10	20	29	21	25	16	10	9	14	12	9	552
기 도	4	6	3	3	3		4	5	5	7	6	1	11		11	7	10	10	6	7	6	2	2	6	5	7	6	2	2	7	11	11	6	7	6	8	5	2	6	216
그 룹	7	6	6	12	7	9	1	5	8	6	7	1	10		13	9	14	15	9	7	6	3	4	10	5	5	6	7	4	6	15	12	16	8	7	6	5	7	9	293
아침부흥	10	8	7	7	4	3															8	5							2	10	23	16	13	13	7		6	5	7	154
어린이	11						21							12						18										12			8			7		89
어린이전람							7							12						5																6		30
중고등부	8						3							11																15			9			4		50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5. 29 16-22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032-566-0190 FAX 032-567-019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E-mail : triune@nate.com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높은 중점

엡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만들고,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함으로,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 이 진리를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부터 부활까지의 그분의 이 과정은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절차였으며, 최종적으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이 영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첫째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지금 거룩케 하는 영이 되셨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얼마의 믿는 이들을 감동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 거룩케 하는 영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분별하셨다. 이 영의 거룩케 하심은 누가복음 15장의 여인처럼 등을 켜고서 부지런히 죄인을 찾는다(3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거룩케 되었다. 둘째, 이 영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넣었다. 셋째, 우리가 믿자마자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며,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새롭게 하는 거룩케 됨은 위치상의 거룩케 됨 이 아니라 본질상의 거룩케 됨이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분별해 내셨는데, 그것은 위치상의 거룩케 됨이었으며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일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분을 변케 하셨는데, 그것은 본질상의 거룩케 됨이며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일이다. 이 본질상의 거룩케 됨은 한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거룩케 됨은 새롭게 됨을 가져오고, 새롭게 됨은 일생의 일이다. 새롭게 됨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 역시 일생의 일이다.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주와 같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부터 마지막의 형상을 본받음까지 모두 이 영의 역사이다. 최종적으로 이 영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며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이 타락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되게 한다. 그 때가 되면 우리 타락한 육체 역시 구속되고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됨이며,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한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마음의 갈망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이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똑같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는 사람을 중심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 곧 재생산되어 온 땅을 가득 채울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자신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용어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류로서 창조하신 사람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락 후에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인류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곧 하나님-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셨고, 이 하나님-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의 대량 재생산을 얻으심으로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종류는 신류(神類)도 아니고 인류(人類)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사람 종류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사람 종류, 곧 하나님-사람들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새사람, 곧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 곧 하나님-사람이 되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시어 사람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따라서 하나님-사람이신 그분의 존재를 위해 그분은 두 본질, 곧 신성한 본질과 인간적인 본질을 갖고 계셨다. 성령께서 사람 처녀 안에 잉태되신 것은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사람,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신 분을 산출하였다. 온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사람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인간 미덕들이 있는 인간 본성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그 처음에 하나님-사람에 대해 말한다. 오늘날 이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사람들이 되셨다.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한 원형이시다(벧전 2:21). 많은 하나님-사람들은 그분의 재생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롬 8:3)은 그분 자신을 대량 재생산하심으로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롬 8:29, 히2:10). 이 새로운 종류는 바로 하나님-사람 종류이다. 하나님-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지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재생산인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밀알이신 첫 번째 하나님-사람은 원형이셨고, 이한 알의 밀이 죽고 부활함으로 산출된 많은 밀알들인 많은 하나님-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재생산이다. 많은 하나님-사람들인 많은 밀알들은 하나님의 재생산이다. 그러한 재생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은 그 재생산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재생산 안에 계신다. 이 재생산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그분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인 위대한 한 사람을 산출하는데, 이 사람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種)에 속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분과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또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매일의 체험에서 우리는 혁신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사람들, 하나님-사람 종류, 하나님의 재생산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높은 중점이다.

<오늘의 양식에서 발췌>

복음 전파와 네 가지 회복의 관계

마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는 복음 전파에 아주 익숙하지만, 사실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확실히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과 몸과 지방 교회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표현 하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죄인들을 향해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허공을 향해 그리스도를 표현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한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다만 영적인 교리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삼 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둘째로,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령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이것 또한 복음 전파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복음 전파는 교리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입하라고 권하거나 말씀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이 영 안에 살고, 영 안에서 불타며, 영으로 점유된 사람이라야 우리의 복음 전파에 능력과 실재가 있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마 7:16)라고 말씀하셨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나무라고 말하지만,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성령 운동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참된 능력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확실히 영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 복음 전파가 다만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라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영을 격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상상들을 정복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생각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지방 교회가 만일 복음 전파에서 약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교회가 복음에서 약해지면, 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구호만 외쳐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떤 지방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와 복종하고 죄를 처리해야 한다. 오직 한 가지 일만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금식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자신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영으로 돌이켜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참된 능력이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리를 듣거나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참되게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영 안에서 회개하며,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고 고양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필수이다.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께서 회복되시고 성령께서 회복되실 수 있다.

셋째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 교회 곧 몸 전체가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할 줄은 몰라도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고, 복음지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복음의 망(網)을 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동역이 필요하다. 몸의 간증과 몸의 생활은 복음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온 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과 같아야 하며, 기능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람이 다 직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온 교회가 살아나게 되므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넷째로 지방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집을 짓는 짓과 같다. 그러므로 공허한 말만 외쳐서는 안 된다. 만일 돌 한 조각, 나무 한 토막도 없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질을 중시해야지 양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말이다. 양이 없는데 어떻게 질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오천 명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한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 오백 명은 장래에 주님을 위해 나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여러분은 지방에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만 영적이기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풍성만을 추구하며, 계시와 이상만을 보고자한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집회의 인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지방 교회를 일으키겠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닭털과 마늘 껍질과 같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을 닭털과 마늘 껍질같이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일이라고 경시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도 말고, 끌어오지도 말며,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만 의미가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주 예수님은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마22:9)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의 뜻은 큰 길과 작은 골목의 네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영적인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빗나가서는 안 된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이다. 오늘날 복음 전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우리가 대적에게 기만당해서 복음에 있어서 손상당했기 때문이다. 한 가정이 흥왕하려면 끊임없이 낳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한 세대의 노인만 있다면, 갈수록 체험이 있고 갈수록 노련해지겠지만, 아이는 낳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집은 문제가 크다. 낳기만 해 놓고 기를 수 없다거나, 낳기만 해 놓고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과 나도 고착화되었고, 지금 이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장래가 있고, 주님의 일에 장래가 있으려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복음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지 교회는 복음전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심지어 일이 년의 시간을 투자해 복음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해서, 이 2년 동안은 복음의 해로 온 전체가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기도 집회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온전케 하는 훈련서도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려하여, 복음의 분위기를 산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데리고 오고, 함에 앉아 주며, 말을 건네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어떻게 심방하며 사람을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침례 받게 하는지, 침례 받은 이후 어떻게 그들을 몸의 봉사 안으로 이끌어 오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훈련하면서 2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 새로운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인수는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삼사 년이 지나면, 교회 가운데서 상당히 드러날 것이고, 분명하고 신선한 일을 해 낼 것이다.

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주일 오전은 강대상 하나를 펼쳐놓고, 어찌되었든 말씀 한 메시지만 전하고, 저녁에 떡 때는 집회를 한다면 매번 그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기도 집회 역시 현상유지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 보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인 감각이 갈수록 냉담해져서 맹물 한잔 속에 새로운 요소라고는 조금도 없는 상태와 같이 된다. 팔십 넘은 연로한 아버지와 어머니, 오십 세가 된 큰 형과 사십팔 세가 된 둘째 형, 그리고 오십팔 세가 된 누나, 이렇게 어른만 있고 젊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안에서 여섯 식구가 함께 살지만 사실 흥겨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날 어떤 교회의 상황은 바로 이와 똑같다. 형제자매들 모두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함께 있어도 맛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가 있다. 다른 일에서는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메아리치며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새로운 자극이 오고, 새로운 요소가 오면 기도는 자연히 새로워지고, 교회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영적인 것은 다만 영적인 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요,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큰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주님은 확실히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내어 보내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교회가 얻은 위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주님의 회복의 길 7장 에서 발췌〉